

흑인 지구 높은 철창 도넛으로 녹여

한흑 커뮤니티 갈등 해소하는 율타리선교회

예배터 나눔터 도움터 배움터 사역 중

나눔과 섬김으로 소외된 이들의 율타리 역할을 감당해 온 율타리선교회(The Well Mission)가 올해로 설립 13주년을 맞아 한흑커뮤니티의 화합을 꿈꾼다. 율타리선교회는 21일 오후 흑인 지구에 위치한 서던미셔너리침례교회에서 만찬 기도회를 열고 선교회 사역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 기도했다.

13년 전 흑인 사역을 위해 세워진 율타리선교회는, 현재 예배터, 나눔터, 도움터, 배움터의 4가지 역할로 나눠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다. 예배터는 429 폭동이 일어났던 웨스턴 길(4259 S. Western Ave. LA)에, 나눔터는 다운타운(6가+Towne)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나눔터에선 매일 아침마다 크리스피 크림 도넛을 나누어 주고 있다. 대략 250여명이 이 도넛을 받아간다. 그리고 배움터는 빈곤층 및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약기도 무료로 가르치는 음악학교다.

이 4가지 사역을 가능케 하는 건 바로 도움터 사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도움터란 종교매장을 가리켜 율타리선교회에서 지어낸 단어다.

주로 한인가정에서 기부한 옷가지, 신발, 침대 등 생활용품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팔고 거머져 나온 수익금으로 흑인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한다.

지난해 2월 7가와 후버길에 4582 스퀘어피트의 넓은 공간에 열렸던 도움터를, 최근엔 흑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4708-4710 W. Adams Blvd. LA)으로 옮겼다. 서던미셔너리침례교회 바로 옆에 위치한 이곳에서도 매일 물건을 구입해 가는 지역 주민들의 인기가 매우 높다.

그리고 또 한가지. 다운타운 나눔터에서 이뤄지던 도넛 사역이 이곳 도움터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처음엔 도움터 벽에다 낙서도 했던 흑인 어린이들이 도넛에 마음에 녹았는지 이젠 낙서도 안 한다. 도리어 미안해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지워놓겠다고 할 정도다. 이렇게 도넛 하나로 민심을 사고, 그들의 마음을 서서히 녹여 복음을 심겠다는 전략이다.

이 나눔 사역을 즐기게 해 나가는 율타리선교회의 리더는 에스더 나 목사다. 그의 한국 이름은 나



율타리선교회 자원봉사자들이 다운타운 나눔터에서 흑인들에게 도넛을 나누어 주고 있다.

주옥이다. 45세의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와, 샌프란시스코신학대학 등에서 10년간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다.

나 목사에게 이 지역으로 도움터를 옮긴 후 새로 생긴 꿈이 있다. 이 지역은 흑인 지구인 만큼 건물 건

물마다 높은 철창이 솟아 있는데, 이 굳게 닫힌 철창을 복음으로 녹여내겠다는 것이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나 목사는 오늘도 지나가는 흑인 어린이들에게 도넛을 나눠준다.

정한나 기자

교협 4.29 LA 폭동 20주년 다채롭게 준비

남가주 교협(회장 변영익 목사)이 4.29 LA 폭동 20주년 기념행사 3가지를 준비하고 있다.

교협은 최근 JJ그랜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포럼 △남가주 영적 대각성 집회 △다민족기념예배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종교포럼 행사는 오는 10월 5일 오전 10시 JJ그랜드호텔에서 연합

감리교회(UMC)의 후원으로 열린다. 이를 위해 교협은 4.29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5월부터 7월까지 가진다는 계획이다.

질문 내용은 '4.29가 폭동인가, 시민소요인가?', '한인사회가 피해자로서 합당한 조치를 받았는가?' 등이다. 설문조사는 각 종교계에서 진행되며, 결과를 갖고 교협은 종교인들과 무종교인들 간의 비교

분석을 할 계획이다.

이 포럼에는 10월 5일에 열리는 20th National Shalom Summit (UMC)에 참가하는 UMC 관계자 5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설문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근거로 역사적 평가와 인종간의 갈등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각 종교계에서 발표한다.

남가주 영적 대각성 집회는 25

일부터 29일까지 열린다. 강사는 윌팔런 목사(전주바울교회)이며, 나성순복음교회, 주네세운교회, 은혜한인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열바인침례교회에서 각각 열린다.

교협은 또 다민족기념예배를 준비 중이다. KCCD(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 회장 임혜빈)와 공동주최하는 이 행사는 29일 오후 3시 30분 주님의영광교회에서 개최된다. 기념예배에는 비영리단체와 커뮤니티 지도자들이 참석해서도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토마스 맹 기자

INTERVIEW

목회의 본질 붙들 때

역사하시는 주님 체험해

미국에서도 잘 알려진 오순절 계통의 교회인 순복음교회. 그러나 이 교회를 묘사하기에 오순절 계통이란 말은 다소 부족함까지 느껴진다. 순복음교회라고 하면 통성기도, 신유, 체험과 같은 신비한 요소를 먼저 떠올리기 쉽고 미국신학자들이 'Korean Style Prayer'라 부르는 통성기도도, 'Ju-Yo'라는 주여 삼창도 순복음교회를 빼놓곤 말할 수 없다. 한국에서 시작돼 한국을 넘어 전세계에 특별한 오순절 교회 문화를 만들어낸 교회가 바로 순복음이다.

이 중에도 나성순복음교회는 무려 37년간 LA 한인사회를 지켜 온 터줏대감이다. 미주 최대(最大), 최고(最古)의 순복음교회이며 북미 지역 순복음교회의 모교회와 같은 곳이다. 그러나 자칫 이 거대한 타이틀 속에 녹슬고 구태의연해지기 쉬운 위험성이 내포된 것도 사실이다.

20여년 이상을 남미에서 선교사로 섬기던 진유철 목사가 이 교회에 부임한지 5년여가 됐다. 복음의 불모지 남미에서 기적과 같은 교회 성장을 일으켰던 그가 미주를 대표하는 이 교회에 부임한다 했을 때 놀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6년간 파라과이, 5년간 브라질에서 선



진유철 목사

교하며 중남미총회장까지 지낸 베테랑 선교사 출신 목사가 무슨 일을 할지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진 목사는 "제가 새롭게 한 것이 별로 없다"고 대답했다. 다음 질문이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새벽기도회에만 매일 2백명씩 모인다. 젊은 층이 크게 부흥했다. 지난해 나성순복음교회 웹사이트에 25만명이 와서 설교를 듣고 가지 않았느냐"며 따지자 그제서야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렇게 진 목사로부터 '목회의 본질'에 관해 듣기 시작했다.

→ 2면에 계속

TAX 문제 전문 자산통계 및 은행과적 차입해결, 민원세금상담, 세무감사대행
진 IRS 행정관, 감사관, 수시관 40년 경력의 세법전문가, CPAs

Clients	Case (Dec/11-Jan/12)	Results
Mr. Hwang, W	IRS \$62,317	환의 \$8,218
Mr. Lamonnier, H	FTB \$118,874	환의 \$1,700
Ms. Wilson, M	IRS \$450,190	환의 \$20,160
Mr. Kim, H (C. Corp)	BOE	Sales Tax Audit Audit Dismissed
Mr. Rogers, A	IRS \$327,280	Levy lifted & \$500/mo
Mr. Farley, C	IRS \$3,112,350	환의 \$0

TAX HELP TEAM (213) 248-0221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귀국 자동차운송 업계최저 \$950
무료 전화 877-580-2424 / 323-582-2424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미주한인사회 대표 종합법률그룹

LEE & KENT
LAW FIRM
www.leekent.com
www.us-lawoffice.com

이민법 [Immigration]

- 각종 비이민비자 / 이민비자
- 취업비자·취업이민(EB1, EB2, EB3)
- 종교비자·종교이민·가족이민
- 투자비자(E2), 투자이민(EB5)
- 추방재판, 불법체류 구제
- 비자거절·항소

상법 / 소송 [Business / Litigation]

- 민사(소송, 중재, 항소) 부동산법
- 형사, 국제 소송, 기술 이전 / 상표법
- 상법(계약체결·위반)

파산법 [Bankruptcy]

- 개인 파산, 기업 회생
- Chapter 7, 11, 13 소송 및 차압
- 신용 문제 상담

[특별상담]

- 비자 거절
- 영주권 거절
- 추방재판

대표변호사 이문규
LEE & KENT 법률그룹 대표변호사
미국 워싱턴 및 루이지애나주 전문변호사
Univ. of Minnesota 법대 (JD)대학원 졸업(1993년)
Univ. of Missouri 경관학 및 통계학 석사(1989년)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임차물
연방법원 및 세법과할 정부 및 변호사
미국이민법 전문변호사, 임차물
미주리주 공인회계사(CPA) 합회회원
Business Advisory Council 멤버(노아어 담당)
미주 상업인 총 연합회 고문 변호사
국제 Law Firm Couders, Brothman, 근무
국제거래/포사법/이민법/세법 전문인 해법

이문규 법률그룹
LAW FIRM
대표전화 213-380-2828

LA Office
3250 Wilshire Blvd., #1404
Los Angeles, CA 90010
213-380-2828

IRVINE Office
8 Corporate Park #300
Irvine, CA 92606
949-442-8370

SEOUL Office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02-7
영동빌딩내 특별오피스, J7호
02-541-0556

말씀과 기도로 한인사회 이끄는 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 인터뷰

목회의 본질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목사님께서 나성순복음교회에 부임하신지 5년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교회 목회에 있어서 주력하신 부분 혹은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미주 순복음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인만큼 어려움도 적지 않았을텐데요.

저는 선교사 출신으로 소위 '멘땅에 헤딩하는 개혁'을 하며 문제가 아닌 주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받은 것을 참 감사합니다. 문제는 언제 어디에나 늘 있지만 주님도 언제 어디서나 늘 동행하시기에 저는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상황을 만나면, 저도 사람인지라 당장은 반응할 수 밖에 없지만 제가 목회자라는 본질로 돌아올 때, 이 힘

든 상황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중요한 문제는 오로지 “내 사역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내 사역이 이뤄지고 있는가?”입니다. 저는 실은 이 교회에 부임해서 될 새롭게 한 것이 없습니다. 전임자이신 이영훈 목사님(현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은 목회자로서 참 존경할 만한 분이시고 그분이 나성순복음교회에 닦아 놓으신 것을 저는 따라가기에도 벅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뤄지는 새벽기도회와 주일예배, 각종 모임을, 교회 행사들을 잘 지키며 그 기초 위에서 주어진 일들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오 몇 년 사이 나성순복음교회를 모

사하는 몇가지 표현 중에, 나성'순'복음교회라는 말도 있던데 “새롭게 하신 일”은 없더라도 “변화”는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한 일이 없는데 우리 성도들도 교회가 다 변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믿음의 확신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의 능력이란 것은 환경을 뛰어 넘을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환경에 잠식되지만 믿음의 확신이 넘치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자신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덜 깨어진 것이죠.

영적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꿈틀거립니다. 역동성이 생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력이 넘치니 확신이 생기고 어떤 사역을 해도 감당할 수 있는 동기가 주어집니다.

참 감사한 일은 우리 교회가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데 대부분이 자원 봉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아니라, 어떤 보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자원해서,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헌신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변화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이로 인해 생명력이 생기고,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은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역동적으로 사역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목회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겠지요?

의람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일을 찾아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주어진 일을 합니다. 남들이 밖에서 저를 볼 때 제가 참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베데스다대학교의 총장도 맡고 있고 남가주 교회의 수석부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런데 저는 그런 일들에 은사가 별로 없습니다. 주님이 맡겨 주시니 두려움으로 감당할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용하도록 순종하는 것이 목회자의 도리이자 역할, 의무일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 아닌 주님께 집중하는 훈련 감사해

주님이 내 사역에 동행하시는가 늘 점검하며

본질로 승부내는 목회되어야

-그런 접근은 미국적 토양의 교회성장학이 말하는 교회 운영과는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순복음교회라면 교회 성장과 상당히 밀접한 교회가 아닙니까?

반대까지는 아니고 거리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기독교와 함께 그 역사가 시작됐고 기본적으로 기독교 문화가 사회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기독교적 문화 속에서 태어나 자라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서 교제합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교회성장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마케팅 기법은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럽고 어울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한국처럼 기독교의 역사가 짧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본질을 붙잡지 않고는 아무 것도 안됩니다. 저는 선교사 출신인데 선교지는 기독교를 알지도 못하고, 그런 문화도 없고 오히려 적대적이까지 합니다. 무슨 교회성장학을 이야기 하기 전에 비기독교 문화와의 싸움이 먼저입니다. 본질로 승부 내지 않고는 금방 무너져 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크게 부흥은 했지만 어떤 면에서 이런 본질

을 더욱 붙잡는 힘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미국은 본질의 뿌리가 있는 상태에서 성장학을 이야기 했습니다. 현재 많은 미국교회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산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성도 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무너지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제 아닌 주님께 집중하는 훈련 감사해

주님이 내 사역에 동행하시는가 늘 점검하며

본질로 승부내는 목회되어야

그런데 한국은 본질의 뿌리가 약한데 성장학만 이야기 하고 미국식 성장을 따라 하다가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원인은 리더입니다. 리더가 무너질 때 교회가 함께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의 기초가 약한 상태에서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 목회자와 리더에게 성도들이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리더가 무너지면 성도들은 따라 무너질 수밖에요. 그러나 미국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리더가, 특히 한인교회는,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본질을 강하게 붙들 때 거기서 부흥과 성숙,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한인교회의 목회적 흐름이 본질을 붙잡는 목회와는 거리가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욱 성숙하기 위해 지날 수 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한인사회 안 에 많은 교회가 있다 보니 경쟁도

같등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가식적이라 비판만 말고 그 안에서 교회의 순수성을 최대한으로 끌어 올리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따라 나라가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들이 한인사회를 섬길, 보다 검증되고 순수한, 희생적인 사람들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줄 필요도 있습니다.

-순복음교회는 본질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한다' 칭찬받을 수도 있지만 그 외에 있어서는 약점이 많다는 외부의 비난에 자주 직면하지요?

아픈 사람에게 가서 물질 축복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아픈 이에게 그에게 맞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순복음교회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람들의 삶에 희망도, 빛도 없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태동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주고 일어설 힘을 준 교회입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성령에 민감하다 보니 일반인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벗어나 이상한 면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잘 하지 않는 통성기도나 박수, 신유, 축사와 같은 일들이 순복음교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이 이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밖에서 볼 때 우리가 격식이 없고 틀이 없는 것이 우리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확한 길을 따라 행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은혜를 받다 보니 그 표현이 약간 남에게 불편함을 주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태권도를 배울 때 파란 띠를 매고 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자기 최고인 줄 압니다. 아무 것도 모르면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확신이 생기고 기적을 체험하니 그것을 증거하고 싶어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순

TOP MEDIA
교회설교 CD제작
성가대 및 찬양대 소규모 앨범 제작
교회에 필요한 모든 미디어용품 판매
TEL. 323-265-0244 FAX. 323-265-0250
3170 E. 11th St., Los Angeles, CA 90023
www.topmediausa.com topmediausa@yahoo.com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료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736-6696 제시카

전화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122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한 인간 영혼의 가치와 소중함은 그 사람을 누가 사랑하는가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 헨리 스퀴갈 (16세기 청교도 목사)

거룩한 열정

HOLY PASSION CONFERENCE

주제: 디바인 퍼스펙티브에 대한 핵심 강의 (Essential Lecture of Divine Perspective)
● 디바인 퍼스펙티브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시각을 말함

하나님을 아는 놀라움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토록 알기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길 원하십니까?
다윗이 추구했던 하나님의 탁월한 아름다움을 보기 원하고 알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열정 컨퍼런스의 두가지 키워드

1.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생각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춰 성경 말씀을 살펴 볼 것입니다. (Divine Perspective)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퍼스펙티브)을 알아감: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아는 놀라움으로 가득차게 될 것입니다.)
2.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헌신하신 마음들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Fullness of God)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공부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놀라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될 때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에 불 붙여져서 하나님을 아는 놀라움으로 여러분의 삶이 압도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강사 : PASTOR DAVID K. LEE (데이빗 리)

- 현, 예수님을 향한 열정 미니스트리 대표
- 하베스트 교회 담임 역임
- 어노인팅 리더스 미니스트리 대표 역임
- 포도나무교회 부교역자
-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일과 알리는 사역에 헌신함 (이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헌신과 열정, 그리고 불타는 사랑...)

www.PFJM.org | davidlee@pfjm.org

● 기간: 5. 14(월)-5. 17(목)
● 시간: 오전 10:00, 오후 7:00 총 8강
● 대상: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오후 7시 강의 오픈)
● 장소: 미주 비전 교회 (담임목사 이서)
● 주관: 예수님을 향한 열정 (PFJ) Ministries
● 비용: \$50 (4/30 까지 조기 등록 \$42) 티칭 노트 제공
인터넷 등록: www.PFJM.org / 로컬 등록: Call
● 문의: 562-631-3663
● 주소: 1655 W.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 믿음을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십자가를 참으소서...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 12:2)

예수님을 향한 열정 미니스트리는 다음 세대를 예수님을 향한 열정에 불타는 *선도주자로 준비시키는 일에 헌신한 사역 단체입니다.
*A MAN OF DIVINE PERSPECTIVE 1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갈망하고 선포하는 자: 열 3:8, 사 42:16-25

수한 열정이 표현될 때 좀 정체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자신의 단편적 경험에 근거해 판단하다 보니 또 다른 상황이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우왕좌왕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영적 만족을 얻었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월의식을 가져선 안될 것이며 겸손한 태도로 부족함을 보완하고 균형을 맞추어 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성령 운동에 집중하다 보니 대사회적인 운동이나 협력에는 오히려 둔감하다는 비난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랜 기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명예욕이나 물질욕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됐습니다. 죽을 목회라고 생각하니 자유해질 뿐 아니라 정말 날마다 죽는 목회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 면에서 제가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행복한 선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을 체험하며 감격하고 눈물 흘리는 목회를 했습니다.

-중남미 선교사로서 원주민목회, 한인 이민목회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LA 이민목회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은 자신과 혹은 환경과 싸워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보겠다는 결단을 갖고 문제를 다스리고 기도로 매달려 봐야 합니다. 미국이 만들어 놓은 타락한 환경 속에서 끌려가듯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파위를 잃어 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도전을 줄 체험이 중요할 듯 합니다. 체험적 신앙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대할 때, 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하신다든지,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은사를 주신다든지, 특별한 역사를 체험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적 신앙은 반드시 먼저 그 길을 가며 이끌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중요합니다.

체험적 신앙,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은 학문, 이성, 지성 등 흔히 발달한 사회입니다. 발전한 사회일수록 영적인 일에 승복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런데 영과 혼의 공통 분모는 체험입니다. 박사 학위 수습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으면 어떻까요? 그동안 "교회는 시시하다" 하면서 안 다니던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 절망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치유함을 받았다면요?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 영적 세계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영과 혼은 체험이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습니다.

체험적 신앙이 중요하긴 한데, 반드시 말씀과 성령의 체험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체험적 신앙을 한다고 할 때, 이것이 말씀에 근거가 없는 체험이 되면 속된 말로 '산신령' 신앙이 되고 맙니다. 사람이 영적 공허함을 채우려 하지만 교회에서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성령과 아무런 관계없는, 근거없는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영과 혼의 공통 분모인 체험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아주 강력한 영성을 지닌 신앙으로 자리날 수 있습니다.

-체험적 신앙에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맞는 말인지 하지만, "말씀을 듣고 성령 체험을 했다"는 경우가 성립 가능한가요? 웬지 성령 체험이라면 신비한 경험이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성령 성령 아무리 소리 질러도 이것은 성령 역사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생때를 쓰는 것입니다. 기차가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도 철길이 있는 곳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하고 놀라운 기적을 맞보아



도 말씀이 없다면 그 역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막연한 성령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된 성령의 역사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강조합니다.

순복음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고 체험을 많이 강조한다는 것은 말씀이 될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역사 자체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성령의 체험을 할 때, 교회라는 영적 울타리 안에서 잘 가르쳐 주고 인도해 주어야 할 때로 맺게 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비산 기계일수록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해야 합니다. 비산 기계를 매뉴얼도 보지 않고 아무 데나 쫓고 누르다가 '핑' 터지게 놓아 두는 이는 없습니다. 성령 역사의 매뉴얼이 바로 말씀입니다. 혹은 교회에서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행하다가 고장난 기계처럼 '핑'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다 말씀의 매뉴얼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목회와 신앙의 본질에 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교회가 사회 참여에 두드러지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도 교회가 교회연합체로서의 본질에 충실한 것이라 평가하십니까?

저는 현재 교회의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변혁의 회장을 비로해 교회를 이끄시는 분들이 모두 훌륭한 분들입니다. 요즘 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일들은 교회가 사회 속에서 해야 할 마땅한 사명의 일부라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단계건 지나친 파위를 갖는 것은 비성경적이며 위험하다고 봅니다. 부연한다면, 교회가 지역 교회들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울타리가 되는 것이면 좋다고 봅니다.

지금 동성애 문제, 선거구 조정 문제, 4.29 폭동 기념식 등 다양한 행사를 교회가 관여해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회가 앞에 나서서

이 아니라 이 지역의 모든 한인교회들이 공감대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해시키고 돕는 역할이라 평가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는 본질에 관한 인터뷰 중 '본질'을 단 한 마디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를 확실히 알고 믿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모든 진리의 말씀은 예수께서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갈수록 말세가 되어 약해지는 세상 가운데, 경제적, 사회적 위기가 운데, 교회에 희망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힘든 이만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앞에서든 예수를 붙잡고, 그 본질을 붙잡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김준형 기자

지역사회 소금과 빛 되어 축복 나눠야

말씀으로 만난 성령의 역사

체험적으로 아는 신앙 중요해

교회는 마땅히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교회는 지역사회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고 성도가 발 딛고 사는 지역사회가 잘 되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믿음이란 것은 결국 믿지 않는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므로 성도들이 모든 면에서 믿지 않는 이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LA의 일들을 예로 들면, 선거구 조정 문제는 교포사회와 직결된 문제이기에도 저도, 우리 교회도 100% 이 일에 헌신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협력했습니다. 동성애 문제는 어떻게 하니까? 이것은 교포사회를 넘어 전 미국의 내일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이며 영적으로도 그 심각성이 크기에 교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선교사 출신'이라는 경력이 목사님의 목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목회의 대부분을 선교사로서 보냈습니다. 사실 부러움을 일찍 받았는데 목사가 안되려고 제 인생 제 멋대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선교지에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며 목회하면서 저는 죽음을 뛰어넘는 목회에 관해

원주민목회나 이민목회나 예배함에 있어서는 다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많이 달랐습니다. 일단 남미에서 목회할 때는 병, 원, 공권력과 같은 사회 안전장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광풍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17년간 사역했던 파라과이는 교회를 신중하고 나쁜 경비원이 산탄총을 들고 경비를 서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는 일은 예사이고, 상파울로에서 어떤 권사님은 새벽 예배를 나오며 5번이나 강도를 만났는데 나중에 그 강도가 권사님의 얼굴까지 알아 볼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와서 눈도장이나 찢고 가는 정도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미국은 환경이 아무래도 그곳들보다 낫다 보니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 세상에 의지하는 기대감이 더 큼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건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알아야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 세상의 풍파 속에서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에만 쫓겨 다니게 됩니다. 신앙인이란 한번쯤

Advertisement for '굿모닝 보험' (Good Morning Insurance) with contact info: 213.761.9990,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Large advertisement for Los Angeles ORT College, featuring a map, contact info, and a list of services like ESL, medical office management, and computer-aided design.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 한인도 참여

5월 첫째주 목요일 ‘ONE NATION UNDER GOD’

매년 5월 첫째주 목요일은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National Day of Prayer)로 전 미국인들은 이날 미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한다. 올해 2012년의 주제는 ‘ONE NATION UNDER GOD’이다.

남가주 교계는 2001년부터 이날 한인들이 중심이 되어 미국의 국가 지도자들을 위한 연합기도회를 진행해 왔다. 올해는 5월 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올림픽장로교회에서 남가주교협, 남가주목사회, JAMA, 성시화운동주최로 개최한다. 이번 기도회에는 강석희 열반인 시장을 비롯해 다수의 한인 정치인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는 자신과 미국의 죄에 대한 회개, 교회와 목회자, 성경적 가정의 회복, 공립학교와 각종 교사들의 영적 회복, 대통령 및 장관들과 11월 선거, 입법부·사법부·군 지도자들, 175개국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 등을 위해 기도한다.



남가주 교계 지도자들이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

남가주교협 회장 변영익 목사는 “이 기도회는 평신도들의 참여율이 높지 않은 것이 늘 개선점으로 지적되곤 했다”며 “올해는 미국을 위해 우리 한인 평신도들도 목회자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올해로 61회째인 이 기도의 날은 국제 CCC 창설자인 빌 브라이트(Bill Bright) 박사의 부인인 보넷 브라이트(Vonette Bright) 여사가 대표를 맡아 섬겨 오다가 현재는 제임스 님슨 목사(James Dobson, Focus on the Family)의 부인인 셠리 님슨(Shirley Dobson)

여사가 맡아 이끌어 가고 있다.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은 1863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필요성을 제기했고 1952년에 의회에서 인준한 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법으로 제정됐다.

토마스 멩 기자

다른 것 다 없어도 이것 있어야 교회에 미래 있다



크리스 윤 목사와 여병현 목사. CEF 한인지회가 개최한 교사강습회에서 윤 목사와 여 목사는 각각 교사들에게 강한 사명감의 도전을 던졌다.

어린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안전하고 좋은 시설이 필요하다. 재밌고 신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그래서 어린이 사역에 눈 뜬 많은 한인교회들이 거대한 재정을 들여 이런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교육심리학 박사 출신 목회자가 말하는 어린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캘스테이트 노스리지, 아주 사피서피대학 등에서 교수를 역임했을 정도로 이 분야의 권위자이면서 초등학교 교사 경험도 있고 한인교회에서 23년간 어린이 사역을 해 온 크리스 윤 목사는 “교사”야말로 어린이 사역의 최우선 요소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날 컨퍼런스에는 2백여명의 교사, 교육부 지도자, 교회학교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VBS 찬양과 율동, 풍선 게임을 성경 강해, 연극으로 복음 전하기, 종이접기로 복음 가르치기 등 실질적인 내용을 배웠고 나아가 창의적인 어린이 예배, 차세대 인도법, 소그룹 운영법 등 어린이 사역의 철학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곧 다가올 여름성경학교 사역을 준비하는 교회들에 다양한 정보와 네트워크를 제공하고자 전 미주를 순회하며 교사 컨퍼런스를 열고 있는 어린이전도협회 한인지회는 5월 12일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한번 더 교사 컨퍼런스를 열 계획이다.

한편, 한인지회는 오는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3박4일간 CEF 캠프장에서 어린이 세생활 캠프라는 여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의 참여와 뜻있는 이들의 후원을 요청하고 있다.

문의) 213-382-1544 김준형 기자

“청년들이여! 헌신하려면 바로 지금!”

제 26회 남가주청년연합집회 인랜드교회에서 성황리 개최

제 26회 남가주청년연합집회(대표 더글라스 김, 이하 HYM)가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오후 7시에 인랜드교회(박신철 목사)에서 열렸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의미 ‘사명’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집회는 첫째날 윤대혁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 부목사)와 둘째날 박형은 목사(동양선교회)가 강사로 섬겼으며 선교사 자녀들로 구성된 CCM 그룹 LIVING CANVAS와 제 22회 CBS 창작복음성가제에서 대상을 받은 최윤영 자매가 오프닝송과 특송을 맡았다.

이날 참석한 남가주 청년들은 주를 중심으로 찬양하며,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모습이였다.

메시지를 전한 박형은 목사는 시종 유머러스한 강의로 청년들과 호흡을 함께 하며 강의를 이끌었다.

박 목사는 목회자 가정에서의 어린 시절, 목사의 길을 걷게 된 동기 등을 설명하며, “하나님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다”며 “비전은 완성품을 볼 수 있는 안목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름 중요한 일을



남가주청년연합집회가 사명을 주제로 해 인랜드교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를 부르신다. 나중에 허리는 마귀의 속삭임이다. 지금 헌신하라”고 강조했다.

또 박 목사는 자신이 동양선교회에 부임하게 된 것과 관련해 말하기도 했다. 그는 “EM 목회를 20년 동안 하면서, 교회를 떠난 미국의 많은 한인 청년들을 만나 보니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같다”라며 “부모들은 신앙이 아니라 한국 사람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나간다는 것이다. 부모 세대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고 그들은 말한다”고 했다.

이어 박 목사는 “1세가 살아야 다음 세대가 살 수 있다. 어른이

살아야 교회가 살기 때문에 1세 목회를 꾸꾸게 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목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광을 올려 드리는 삶을 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시지가 끝난 후 결단 기도의 순서도 진행됐다.

HYM은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인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보내소서(Here I am)”의 첫 글자 ‘H’와 Young Christian의 첫글자 ‘Y’, Movement의 첫 글자 ‘M’을 조합한 것이며, 남가주 최장수 청년연합집회로 매년 두 차례 열리고 있다.

토마스 멩 기자

예수님 제자 되려면 날마다 죽어야

베델한인교회(손인식 목사)가 52주 대각성 기도회를 매주 수요일에 열고 있는 가운데 18일 극동방송 사장 김장환 목사가 초청돼 말씀을 전했다. 이날 특히 창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방문해 찬양 콘서트를 펼쳐 많은 박수를 받았다.

김 목사는 ‘제자’라는 주제로 설교를 전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반도제, 조선, 철강 산업에서 1등을 달리고 있고 원조를 다른 나라에 줄 정도로 큰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OECD 국가 중 자살률 1등, 이혼률 1등, 교통사고 1등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일어나면 전세계에 큰 부흥이 오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한 사람은 자기가 죽고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다. 죽지 않으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낮아지고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극동방송은 1956년 12월부터 선교사 파송이 불가능했던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북방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시작됐다.

토마스 멩 기자



RETREAT CENTER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에서!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에 관하여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와 미국 국제 선교 센터 (U.S. Center for World Missions)는 1976년 캘리포니아 로버트 윈터에 의해 전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깨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전도 종족에게 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파사데나에 위치한 35 에이커의 시설은 활기 넘치는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곳에는 여러 기관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과, 교제 할 수 있는 공간, 각 그룹마다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시작할 수 있는 선교 전략과 훈련을 위한 공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초청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는 가진 자원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의 첫째 목표가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정은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의 선교 사역에 사용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캠퍼스에서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기를 초청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약 및 문의: 고세희 1539 E. Howard Street, Pasadena, CA 91104 626.398.2415 conference@wciu.edu www.wciuproperties.com/conferences/Korean

기도 사역의 대가가 말하는 기도

밴더그린 목사 “기도 우선시 하는 분위기 조성 필요”

“어떻게 해야 교회 내에 기도 문화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까?”

기도 사역의 대가 앨빈 밴더그린 목사가 물음에 대한 해답을 시원하게 밝혔다. CRC(북미주개혁교회)가 교단적 차원의 풀뿌리 기도 운동의 일환으로 개최한 '2012 기도 서밋' 워크샵에서다.

그는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중심의 귀납적 성경공부 프로그램인 커피브레이크의 창시자이자 하베스트기도사역의 대표를 맡고 있다. 또한 잘 알려진 <교회 기도 자료>의 공동 저자이며, 미국 국가기도 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도와 기도 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예수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전”이라고 하는 밴더그린 목사는, 16-18일 ANC은누리교회에서 열린 워크샵에서 교회 내 기도 문화를 형성하는 비결에 대해 강연했다.

물음에 대한 결론부터 말하자면 “누구나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다.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회 내 기도 문화 정착을 위한 전략을 소화해 낼 수 있다면 말이다. 그는 우선 “기도에 대한 편견을 깨뜨려야 한다”, “기도 문화는 기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운을 뗐 뒤, “기도에 대한 이해와 그 가치를 알 때 기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교회는 교육, 예배, 전도,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못지 않게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기도에 우선적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할 수



한인교회에도 잘 알려진 커피브레이크 사역을 창안한 앨빈 밴더그린 목사가 교회 내 기도 문화 정착을 위한 전략적 사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결과 기도가 활성화 되면 하나님의 비전과 능력이 함께 하게 되고 교회 내 제반 사역은 자연 풍성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마무리했다. 즉, 교회 사역에 앞서 기도 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앨빈 목사는 그의 저서 <Love to Pray: A 40-day Devotional for Deepening Your Prayer>에서 중보기도에 도움이 되는 모델 B.L.E.S.S.를 장만하기도 했다. 이를 풀이하자면 다음과 같다.

▷B-신체(Body). 건강과 치유를 위해, 일용할 양식(필요한 물질)을 위해 기도하라. ▷L-노동(Labors). 직장, 학교,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하라.

▷E-정서적 욕구(Emotional Needs). 위안, 안심, 희망, 기쁨, 화평 등을 위해 기도하라.

▷S-사회적 욕구(Social Needs).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 기도하라.

▷S-영적 욕구(Spiritual Needs).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깊어지도록 기도하라.

끝으로 그는 역사적으로 기도 운동에 성공을 이룬 바 있는 복음주의 교단인 복음주의연합교단(ECC, Evangelical Covenant Church)의 사례를 들면서, “CRC 교단에서도 이같은 기도 운동을 일으켜 보자”며 워크샵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 기도 서밋 관련 기사 8면으로 정한나 기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라



런던의 레인즈파크교회에 시무하는 박종도 목사가 남가주광명교회 2주년 기념 부흥회에서 위로와 도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박종도 목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라는 주제의 설교를 통해 창립 2주년을 맞이한 남가주광명교회(정우성 목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 그는 20일부터 22일까지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라는 주제로 창립 2주년 기념 부흥회를 이끌었다. 박 목사는 영국 런던 레인즈파크교회를 개척했으며 현재 큰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그는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 교회가 성장해감에 따라 겪게 되는 갈등을 설명했다.

그는 로마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부정한 음식을 놓고 갈등하는 문제를 두고 “본질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겠으나 비본질에 있어서는 이해와 관용

이 필요하다”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대할 때 그의 생각이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환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복음의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는 교회들의 사례를 들며 광명교회 성도들에게 도전을 던지고 창립 2주년을 넘어 더욱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되는 공동체가 될 것을 당부했다.

박 목사는 “개척교회에만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서 “성도들도 개척교회에 출석하면 더욱 헌신해야 하고 때론 어려움도 겪겠지만 더욱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GBC 방송선교 후원의 밤 성황리 개최



GBC선교합창단이 <주의 영광 선포하라>를 합창하고 있다.

남가주 최초의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인 미주복음방송(GBC)이 22일 오후 8시 해한인교회에서 ‘GBC 방송선교 후원의 밤’을 GBC선교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및 연합기도회를 겸해 개최했다.

GBC 방송선교 회원 7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미국의 회복’을 주제로 했으며, 남가주 30여 교회 단원들로 구성된 GBC선교합창단을 비롯해 LA남성선교합창단, 영엔젤스합창단, 랜디 김 빅밴드, LA플레이어즈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선율과 하모니로 무대를 꾸몄다.

GBC 윤우경 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GBC 상임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영길 목사(감사한인교회)가 환영의 말씀을 전함으로 막을 올렸고, 방송선교 회원 대표 이영배 장로(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가 나와 기도했다. 이

어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가 동성애 문제를 비롯한 현 시국을 우려하면서 이를 위한 기도와 행동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특히 미국의 회복과 2세들을 위해, 북한과 조국의 통일을 위해, 방송을 통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참석자 전원이 기립한 상태로 두손 들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했다. 기도 인도는 박신욱 사장이 맡았으며,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가 마무리 기도를 했다. 축도는 엄영민 목사(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가 맡았다.

1991년 설립된 이래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 온 미주복음방송은 AM1190과 FA88.3 특수 수신방송으로는 남가주 일대, kgbc.com으로는 전세계에 주 7일 365일 24시간 방송되고 있다.

정한나 기자

카이스트 박사에서 스탠포드 연구교수까지 버렸더니

최하진 선교사, 글렌데일 한인장로교회 부흥회에서

최하진 선교사. 그는 성령의 사람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처럼 허가 풀린 듯 부흥회 내내 그는, 말씀을 실재 없이 토해냈다. 말이 어찌나 빠르니 속도를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였으니 말이다.

중국 열방중고등학교 설립자이자 미국 돈미션(Dawn Mission) 설립자이기도 한 최하진 선교사가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류종영 목사)에서 선교부흥집회 강사로 나섰다. 20-22일 “믿음은 반응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 집회를 위해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그는 강단에서 ‘버림’의 영성에 대해 역설했다.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 최 선교사는, 카이스트 공학박사 출신으로 스탠포드대학교 연구교수로서의 안정된 삶을 버리고 중국으로 떠나 열방학교를 세웠다.

한때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가 보장된, 누구나 부러워 하는,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발탁된 순간 그 모든 자람을 헌신짝같이 버려두고 중국의 청소년들을 하나님께 인도한다는 사명을 좇아 혈혈단신 중국 벌판에 섰다. 소유를 상징하는 ‘해빙(Having) 모드’에서 존재의 ‘빙(Being) 모드’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번 집회에서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인생을 걸 때 어떻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지는지를 생생히 증거했다.

최 선교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결단은 레디컬(Radical)하지만, 그 결단 뒤엔 스위트(Sweet)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길 권했다.

이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 앞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현현하셨을 때, 모세가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 자신의 아젠다를 내려놓고 부르심에 순종했다”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캐스팅에 반



최하진 선교사가 믿음은 반응임을 강조하고 있다.

응하고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란다”고 독려하면서 집회를 마무리했다.

정한나 기자

GOLDEN STATE UNIVERSITY

School of Oriental Medicine

골든 스테이트 한의과 대학

"진인 치유 사역은 기도와 말씀, 의술, 건강교육을 통하며!"

신입생 모집

가주 한의사 면허 취득반

주정부, 한의보드 정식 인가 학교

- 파격적인 장학금 제도 (유자격자 50%까지)
- 최고의 교수진, 최고의 교육환경 (대학 2년 수료 또는 동등한 학력 소지자)

편입생 모집

평생 사회 교육원 운영

누구나 한의를 쉽게 배울수 있는 기회!

한의학 과목 수강시 Credit 인정! (유자격자)

(한의학 기초반, 진단학 교실, 침구반, 본초교실, 지압, 가공)

중, 장기 선교사 훈련반

양·한방 진단, 영양치료, 경락치료, 운동물리치료

단기 의료 선교 팀 보조사 훈련

각 교회 의료 선교 사역팀 훈련 의뢰 받습니다.

특혜 1. 일대일 임상지도 2. 취업, 선교지원 3. 자녀관리

9047.E. Florence Ave. #L. Downey, CA 90240
website : http://goldenstateuniv.us

입학문의 : (562) 622-3368 / gsu_inc77@yahoo.com

대학 병원 진료 쿠폰

무료진료 상담, 치료비 50%, 유능한 임상 전문의

진/료/과/목	부인과 : 생리불순, 경년기 증세, 비만
	남성과 : 전립선, 스트레스성 분뇨, 비만
	노인과 : 치매 예방 보약, 골다공증 예방 보약, 몸 시림 보약
	청소년과 : 여드름, 비만, 위염
	유소아과 : 발육 성장 촉진, 감기 예방, 비만예방

예약 전화 : 562-965-5112

총장 : 김성일 한의학 박사, 여목사

후원 : Holy 의료 교육 선교회, Holy 한방 병원



Kobe Pearl LAS VEGAS Mother's Day Special S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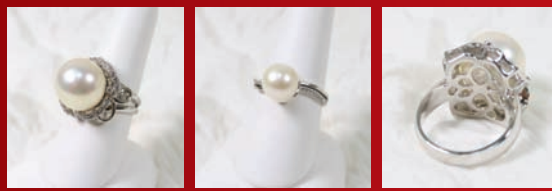
"어머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화려한 반지파티로의 초대”

\$99부터 \$999까지



Kobe Pearl LAS VEGAS
L.A 한인타운 등 4곳에서 펼치는
어머니날맞이 특별진주보석쇼



무려 1천여점 전시 돌풍 예고!!
고베펄의 다양한 디자인의 화려하면서도, 단아한 한국 세공 진주반지들을 만나세요.

BIG SALE



프리미엄 日本산 핵진주 반지



천연 홍산호 반지



천연 옥 반지

진주, 홍산호, 옥
BIG3 반지

남양진주, 해수진주, 아코야진주 등 4000여점 전시 특가 판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세공기술과 진주메카인 일본공법으로 제작된 화려하면서도 단아한 디자인의 신제품 진주 보석류 전시 특가판매



HELEN AIKO PREMIUM PEARL



고베펄 최고급 프리미엄 Helen Aiko 홍산 황금 남양진주 비드 목걸이 전시 및 판매

“고베펄의 프리미엄 라인 HELEN AIKO 제품 전시 및 판매”

www.kobepearl.com
고베펄 온라인 쇼핑 오픈

포털사이트에서 “고베펄” 또는 “진주보석”을 검색해보세요.

- 고베펄 온라인에서만 만나실 수 있는 특별가격
- 고베펄 블로그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다양한 위용거리와 행사정보
- 인터넷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편리한 전화 결제시스템

고베펄 온라인 사업부

606 S. Hill St #1017 Los Angeles CA 90014
문의 및 주문전화 213-590-2218



최고급 고베펄 아코야 AKOYA 진주목걸이 특가세일

고베펄 아코야진주 목걸이 구입시 아코야 STUD진주 귀걸이 선물증정

오리진날 일본산 최고급 아코야 진주는 고베펄에서 구입하세요!

아코야 진주 한줄 비드목걸이 (6.5mm - 7.5mm)
\$799

아코야 진주 두줄 비드목걸이 (6.5mm - 7.5mm)
\$1299

자식들과 남편을 위해 많은 고생을 하신 어머니, 아내에게 고베펄이 마련한 BIG3 진주목걸이를 어머니날 선물로 미리 준비하세요.

※ 비드목걸이 BIG3 제품은 품질가능성이 있으니 구입을 서두르세요.

reg. \$499
\$99
진주 비드 목걸이 (7mm - 7.5mm)

reg. \$1499
\$259
진주 비드 두줄 목걸이 (7mm - 7.5mm)

reg. \$1599
\$299
진주 비드 목걸이 (8mm - 8.5mm)

문의 전화 **213.308.6326**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 오후 8시까지 영업합니다.

- 행사 특성상 특정 인기 행사 품목은 품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님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행사 장소에서는 제품의 수리 및 A/S를 하지 않습니다, 수리 및 A/S문의는 고베펄 본사 (인보이스 뒷면 참조) 문의해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로렌하이츠 행사일정안내]

행사일정: 2012년 5월 2일 (수) 단 1일간
행사장소: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Best Western Plus
주소: 18880 Gal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1층 놀스롤랜드룸 North Rowland Room (1st Level)

[밸리 행사일정안내]

행사일정: 2012년 5월 5일(토) 단 1일간
행사장소: 레디슨호텔 Radisson Hotel Chatsworth
주소: 9777 Topanga Canyon Blvd, Chatsworth, CA 91311
베네지아룸 Venezia Room (Main Level)

[엘에이 한인타운 행사일정안내]

행사일정: 2012년 5월 3일(목) 부터 4일(금)까지 2일간
행사장소: 로텍호텔 Rotex Hotel 2층 뱅킹룸
주소: 34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올림픽과 그램머시 Olympic blvd + Gramacy)

[가든그로브 행사안내]

행사일정: 2012년 5월 6일(일) 단 1일간
행사장소: 라마다 플라자 Ramada Plaza
주소: 10022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2층 퍼시픽홀 Pacific Hall (2nd Level)

CRC 교단 차원의 풀뿌리 기도운동 일으킨다

기도 서밋 코디네이터 정모세 목사 인터뷰

북미주 대륙에 교단 차원의 대규모 기도운동이 일어날 조짐이다. CRC(북미주개혁교회)가 150여년 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교회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 중보기도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기도 서밋'을 가졌다. 지난 16-18일 남가주 레이크뷰테라스에 위치한 ANC온누리교회에서다.

교단 산하 한인교회협의회가 중심이 돼 교단 차원의 대규모 기도운동을 벌이게 됐다는데서 이번 행사가 갖는 의미는 특별했다. 참고로 현재 CRC 내에는 1080여 교회가 있고, 그 중에 120여 교회가 한인교회다. 이 중심에는 이번 행사를 총괄하고 코디네이트한 정모세 목사(국내선교부 흠미션 디렉터)의 공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본지는 기도 서밋이 열린 현장을 찾아 그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번 행사가 지니는 의의와 배경에 대해 설명해 달라.

우선 이번 행사 주최는 CRC 한인교회협의회(박장호 목사)가, 주관은 ANC온누리교회(유진소 목사)가, 후원은 CRC 교단(조엘 부트 교단총무)이 각각 맡았다. CRC는



CRC 교단 차원의 기도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이 행사는 기도의 영성을 자랑하는 한인교회가 중심이 되어 교단에 제1회 기도 서밋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CRC한인교회협의회와 교단 측의 정모세 목사가 총괄적으로 주도했다.

주류 교단인만큼 그동안 대부분의 행사가 백인들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하지만 기도 서밋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섭외, 진행 등 행사 전반적인 영역에서 한인 목회자들이 주도권을 갖고 총괄 지휘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의를 지닌다. 교단 역사상 한인들이 중심이 돼 이같은 행사를 열게 된 것도 처음이다.

행사 개최의 주요 배경은, 종전

의 교단 중심의 위로부터의 운동에서 밑으로부터의 풀뿌리 기도운동을 일으켜 보자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요즘 대부분의 미 주류교단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CRC 역시 신학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는 킹덤 마인드(Kingdom Mind)가 있어서, 하는 사역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지만, 상대적으로 기도가 약하다.

이에 특별한 기도의 영성을 지닌 CRC 한인목회자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사실이 교단에 알려졌고, 교단 측이 반색을 표하며 백인들을 포함한 전체 교회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나오면서 성사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교단 본부가 중심이 돼 교단 내 기도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여러 프로그램들을 추진해 왔다. 저 또한 현재 미시간에 있는 교단 본부에서 흠미션 디렉터로 사역하면서 관련 프로그램을 맡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엔 교단 본부가 중심이 아니다. 본부는 그저 뒤에서 후원하고, 실제로는 이 곳 남가주 한인교회들이 주도적으로 북미주 전역의 교단 산하 전체 교회를 초청해 행사를 이끌어 나갔다.

1세와 1.5세대간 동역도 특이할 만한 점이다. 언어적, 문화적인 측면에서 훈련된 1.5세 인재들이 교단 내에 상당히 많다. 한국 문화뿐 아니라 미국 문화에도 친숙한 이들 1.5세들이 이번 행사에서도 미국교회와 한인교회와의 교량 역할을 잘 감당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제일 큰 축복 중에 하나가 기도이고, 사실상 미국인들에게 한인교회 하면 기도가 가장 먼저 떠오를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다. 그렇기에 미국교회를 위해 한인교회가 기도를 통해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부흥을 가져오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계기

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행사 참석자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

등록자수는 4백여명이다. 행사 첫날인 16일 저녁에는 ANC온누리교회 교인들이 많이 오셔서 9백여명 가까이 모이기도 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미국에 많은 한인교회를 세우신 데는 분명히 뜻이 있고, 한인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미 주류교단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왔는데, 바야흐로 우리 한인들이 기여하고 삼길 수 있는 때가 왔다.

그리고 이 시대 하나님께서 한인교회에 주신 사명은 미국과 전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기도의 사명을 CRC 뿐 아니라 모든 미주 한인교회들이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잘 쓰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하나 기자

한국교회 성장과 역동성의 원천은 바로 “기도”



박용규 교수의 강의를 듣고 후자가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총신대학교 박용규 교수는 '기도와 한국교회의 역동성'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그는 초기 한국 선교사들이 가진 칼빈주의 전통과 청교도적 경건주의 영향으로 한국인들이 기도의

총신대 박용규 교수 선택강좌 강의

사람들로 자라났다고 평했다. 그는 1907년 평양대부흥을 통해 새벽기도가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그 성령의 역사가 현재의 한국교회 성장의 기초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죄사함을 얻고 유혹을 이길 수 있다"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 늘 기도하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 "부흥은 부흥을 사모하는 곳에서 일어난다.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승리하려면 부흥을 사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회는 '주어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눅11:1)을 주제로, 다민족 지도자들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등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강사는 리차드 마우 교수(폴러신학교 총장)와 박용규 교수, 존 워드리엇 교수(칼빈신학교 예배연구소장), 유진소 목사(ANC온누리교회), 정필도 목사(부산 수영로교회 원로) 등 약 20명이 나서서 주옥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빅터 박 기자

기도의 영성 정필도 목사 "눈물 기도가 부흥의 원천"

경험 간증 통해 기도에는 도전 전례

17일 오후에 9개의 선택강좌가 진행된 가운데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원로목사가 '기도와 성령'으로 세운 교회란 주제로 강의를 이끌었다. 정 목사는 이날 교회성장을 이끌었던 경험을 토대로 강의를 전했다.

정 목사는 "교회 부흥은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라며 "주님이 모아 주시니까 몇명, 몇만 명이 되는 것이다. 목회자들이 강단 위에서 설교할 때 울면서 하면 반응이 얼마나 빠르지 모른다. 주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응답이 얼마나 빠르지 모른다. 은혜가 충만히 내리면 말씀의 은혜에 빠져 교인들이 훌륭한 성도가 된다"고 말했다.

정 목사는 개척 초기 기도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밤새도록 기도할 때가 많았다. 지금은 아침 5시에 일어나서 10시까지 기도를 한다"며 "그 시간에 찬송을 부

르고 성경도 읽으면서 제일 행복한 것은, 기도하다가 설교 메시지 기록을 한다. 항상 은혜로운 설교를 주시기 때문에 설교 고민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래 기도하면 교회 문제와 분쟁 해결의 지혜도 주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 목사는 "환락과 시험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기도하다 보면 목사도 응답받고, 교인도 응답받고, 그러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비전과 꿈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신 믿음이 있어야 한다.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교역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기도하는 교회가 많아지면 CRC 교단은 반드시 부흥을 경험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토마스 맹 기자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성을 체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험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갈릴리신학대학 & 랭귀지스쿨
GALILEE SCHOOL OF THEOLOGY & LANGUAGE SCHOOL
목회학석사 (M.Div.) 신학석사 (S.T.M.)
목회학박사 (D.Min.) 신학박사 (S.T.D.)
SEVIS인가 대학, 자체 I-20발행
ESL 프로그램 (음성학적 영어회화방법론을 개발)
Tel. 213-746-1004 / FAX. 213-746-5004
1000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15

BAK KUNG KOREAN B.B.Q
백궁은 최상급의 고기와 최고의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런치 스페셜 \$9.99
고기무제한 All You Can Eat \$6.99
A \$9.99 Lunch Only 11am-5pm
차돌 소스삼겹살 소불고기 닭불고기 매운양념닭갈비 오징어 쭈꾸미
B \$13.99
차돌 소스삼겹살 소불고기 닭불고기 돼지고기 돼지갈비 매운양념닭갈비
C \$16.99
B + 돼지불살구이 L양념갈비 L생갈비 허밀구이 왕새우구이(2인/10pcs) 스키구이(함플)
D \$22.99
C + 꽃살(2인/10pcs) 양념양갈비 왕갈비 양줄구이
3700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19
323.734.9292

2012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 가능)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 Fax: 562-926-1025 / www.ptsa.edu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with the wor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310-793-2285 / Fax: 310-793-2297 / www.cohenuniversity.ac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I-20 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 Fax: 213-381-0010 / www.iruniv.org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e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 Fax: 818-435-2441 / www.myccu.us

솔로몬대학교
 Solomon University, SU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 28:18-20)
 학위: 신학 학사/석사/박사 (BA, D.Min, Th.D), 교회음악, 문예창작 장학금 혜택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 Fax: 213-487-737 / www.solomonuniv.org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일꾼들을 양성



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el: 714-879-7952, 714-393-7952 / hjung3155@gmail.com

국제비전대학교
 정시/수시: (Offline, Online 강의)
 학위: 학사/석사/박사 (D. Min., D.Miss., Ph. D.)
 I-20 발행, 각종 장학금 지급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293-5745 / 213-610-4989 / www.vision.edu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신학.철학 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 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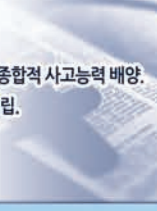
3130 Wilshire Blvd #402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8-9800 / Fax: 213-384-7898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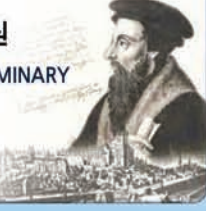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 http://korean.fuller.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A., CA. 90019
 Tel: 323-731-9819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4055 Wilshire Blvd #419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9-8987

미주개혁신학대학교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문예창작학과



2706 Wilshire Blvd. 1st Floor, Los Angeles, CA 90057
 Tel: 213-736-6500 / Fax: 213-736-6504 / reformeduniv.org

아메리칸 신학대학 및 대학원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323-732-7356 / Fax: 818-773-8868 / 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Tel: 562-869-7497 / www.mcuniversity.org

바울성경대학
 말씀을 개혁주의 신학안에서 바르고 깊이있게,
 성경 66권 전체를 공부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언제나, 오실 수 있습니다.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Tel: 562-394-3342 / paulbiblecollege@gmail.com

윌클리프대학교
 Wyclif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는
 개혁적인 신앙과 바른 성서해석을 가르쳐
 어두움을 밝히는 지도자, '개혁의 새벽별'
 존 윌클리프 같은 개혁자를 길러낼 것입니다



14631 Leffingwell Rd. Whitter, CA 90604
 Tel: 562-777-7078 / www.wyclifuniversity.net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 www.aeui.org

Solution for Tomorrow

LASERVISION WORLD
 www.laservisionworld.com

무료 음향 영상 조명 컨설팅 및 System Check-up
 문의 323.730.5050

Customized Solution

*컨설팅부터 시스템 설계, 시스템 시공, 감리, 교육 및 정기점검까지 One Stop Solution을 제공하는
 - Total System Integration
 *최신 HD 레코딩 장비를 갖춘 넓고 조용한 Recording Studio를 기반으로 한
 - Music Production
 *최신 HD 영상 장비를 갖춘
 - Digital Film/Video Production
 *최신 장비로 무장한 라이브 음향 영상 조명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 Live Production 까지
 Laservision World에 오시면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전문 음향, 영상, 조명의 Total Digital Custom Solution을 제공 해드립니다.

Laservision World만이 드리는 다음과 같은 장점
 1. 풍부한 방송 System 시공 및 컨설팅 경험이 있습니다.
 2. 20년 동안 미주 한인 사회와 함께 자라온 안정된 회사입니다.
 3. 음향 / 영상 / 조명에 관한 토털 디자인 서비스를 통해 경비와 시간을 최소화시켜드립니다.
 4. Supervising System을 적용하여 체계적인 System Integration을 진행합니다.
 5. 유지관리 비용을 절약하여 드립니다.
 6. 에너지 절약 디자인을 최우선시 합니다.
 7. 시공 후 Training과 Service 를 통해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8. 일에 필요한 License와 책임에 관한 Insurance & Liability를 갖고 있습니다.



Laservision World / Laservision Structure & Engineering Inc. / wwori.com / AVLgear.com
 1961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7 Tel: 323-730-5050 Fax: 323-383-0257 contact@laservisionworld.com




남가주한인목사회 증경회장회 정기모임 열려



(왼쪽 왼쪽부터) 홍영환 목사, 김중원 목사, 표세홍 목사, 류당열 목사 (아랫줄 왼쪽부터) 한명철 목사, 구기조 목사, 이요한 목사, 김사무엘 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 증경회장회가 23일 정기모임을 갖고 교계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모임에는 로스앤젤레스교역자협의회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LA 한인타운에서 집회를 개최한 구원파의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대책으로 기독교인들을 비롯한 주요 한인언론에 이단 침투 경계를 논지로 하는 글을 기고해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이단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교계 내 소위 '가짜 목사'에 대한 경계도 요청했다. 구기조 회장은 "돈으로 성직을 매수해 목사 행세를 하는 이들을 검출해 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목사회에 이 안건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오는 5월 15일 오전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회장 신신목 목사) 주최로 나성만나 교회에서 열리는 조찬기도회 겸 세미나 행사에도 증경회장회가 적극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하나 기자

LA통일선교대학 2012 봄학기 학생모집

LA통일선교대학(학장 김지성 목사)이 2012 봄학기 학생을 모집한다. 미주 지역에서 북한선교 전문인력을 훈련하는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한 이 학교는 북한선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바람직한 방향, 효과적 사역 방법을 제시한다.

내달 10일 개강하는 봄학기는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클래스가 열리며, 수강생들은 선교학, 북한의 실상, 북한교회사,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 통일비전, 북한선교 현장 등에 대해 배우게 된다. 이 학교는 1년 2학기제로 운영

되고 있으며, 매 학기마다 북한선교 포럼을 비롯해 10주간 북한선교를 주제로 한 집중강의가 이뤄진다. 통신강좌로도 수강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강의노트 및 강의 CD도 발송해 준다.

북한선교와 세계선교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라도 입학이 가능하며, 입학 희망자는 입학원서와 사진, 북한선교에 대한 비전을 담은 신앙간증문을 제출하면 된다. 강의 장소는 글로벌선교교회(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다. 문의: 구동립 목사(909-396-4441) 정하나 기자

◆ 남가주호남향우회 제32대 정인기 회장 · 강종민 이사장 인터뷰

한인사회 위해 존재하는 향우회 되고파

끈끈한 유대감의 대명사로 자리잡은 '호남향우회'. 올해 남가주호남향우회 제32대 회장을 이끌어 갈 정인기 회장과 강종민 이사장을 만났다.

그간 한인사회에서 많은 경험과 리더십을 발휘해 온 정인기 회장은, 남가주부동산협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한인사회에서 32년간 줄기차게 부동산 사업을 계속해 온 베테랑이다. 현재 코스모스부동산대학 학장직을 맡고 있다.

강종민 이사장은 미주한인사업가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현재 벨리에 위치한 세계비전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다.

17일 본지를 방문한 이들로 부터 급변 중점 사업방향과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결속력이 강해 어느 단체보다도 잘 뭉친다는 호남향우회다. 먼저 단체, 어떻게 생겨난 단체이며,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 소개해 달라.

처음 남가주호남향우회가 생기게 된 건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때다. 당시 미국 정부에 한국의 군사정부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고자 16개 지역에서 한인들이 결집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결성됐다가, 지금은 고향을 떠나온 '호남인'이면 누구든지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 중점 운영방향과 사업계획은.

해마다 각 도에서 모범청소년 3명과 인솔교사 1명씩을 선발해 총 15명을 미국에 초청해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

올해도 5박6일에 걸쳐 미국 내 주요 시설은 물론, 교민 가정의 홈스테이에 참여함으로써 한인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과 성공 사례 등을 배우도록 한다. 미국 일정을 소화한 뒤에는 멕시코로 이동해 멕시코호남향우회와 함께 현지 견학에 참여하게 된다.

이 사업을 위해, 오는 6월 8일에는 워터 내로우에서 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LA 소재 커뮤니티 칼리지와 모국 대학교 간 학점 인정 및 교류가 가능하게 하도록 현재 이사진과 협의 중에 있다. 이 밖에 문화생활관 건립, 호남 특산물 판매 및 홍보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향우회 고향에 계신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정인기 회장: 호남인뿐만 아니라, 미국에 사는 모든 한인동포들이 화합 단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호남향우회는 특별히 호남 출신 미주 동포들의 친목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므로 기본에 충실하고, 나아가 모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보람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으고 싶다.

강종민 이사장: 엘에이에는 유독 한인단체가 많다. 대부분의 단체는 회원의 권익과 단합을



호남향우회 정인기 회장과 강종민 이사장.

미국 모범청소년 초청 美 문화 체험 기회도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남가주 호남향우회는 단지 향우권 증진과 화합 도모만이 목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군사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생긴 단체다. 이러한 조국에 대한 헌신과 희생 정신 하에 만

들어진 단체라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같은 정신을 고수 하면서 자기들만의 권익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한인사회를 위해 존재하는 단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하나 기자

교회 바자회 마켓 반찬 취급 하시는분 하숙 하시는분 (도매가에 드립니다)

* 플러스 그릇 무료 제공합니다.

취급 품목			
명란젓	오징어젓	양념게장	고추일무침
청란젓	어리굴젓	양념꽂이	파래무침
낙지젓	가리비젓	간장꽂이	연근조림
조개젓	황새기젓	된장꽂이	우렁된장
갈치젓	고추전어	덕덕무침	냉이된장
			마늘콩무침
			간장고추
			된장고추
			장어구이포
			무말랭이

* LA 에서 직접구운 돌김 50장에 \$10
* 주문 배달합니다

서광식품
(213)268-7004

3109 W. Olympic Blvd., #D Los Angeles, CA 90006

당뇨, 고혈압, 고지혈, 부인병 및 힘든 질병에서 빠르게 증상 개선시키는 청 한의원

대단히 놀랍고도 빠른 효능의 특수침술, 특수진맥

이번주 강의: 당뇨, 고혈압의 합병증에서 빠르게 대처해야되고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심각하고도 위험한 상태에 이를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 초기에 약을 복용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에만 의존하다 눈이 안보이거나 신장투석 다리절단과사, 심장병, 뇌경색 중풍 치매등으로 고생하다 무척 힘들게 되는데 어느정도 약을 줄이거나 벗어나야합니다. 왜냐하면 약은 빠른증상개선으로는 좋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혈관이 막히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몸의 중요장기인 뇌, 눈, 심장, 신장 및 손, 발등 중요한 부분의 파손환이 안좋아져 무섭게 망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나이가 40살 정도인데 당뇨가 생긴지 2년정도인데 눈이 안보여서 본원에서 치료 3개월후 눈이 어느정도 보이게 됐고 당뇨수치가 어느정도 잡혀서 안도의 숨을 쉬지만 당뇨 합병증을 생각보다 무척 힘들고 그 고통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본원에서는 자연의 요법으로 약에서 어느정도 벗어나서 수치가 어느정도 정상이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당뇨 고혈압은 평생토록 관리 조절을 잘해야합니다. 재발할수있기 때문에 완치는 안되지만 약에서 어느정도 벗어나야 그리고 줄여서 합병증에서 벗어나야합니다. 본 한의원에서는 특수침술과 특수침술을 통해서 오래된 통증을 민감함들 정도로 빠르게 수 분 정도에도 통증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됩니다. 아울러 약해진 장기의 균형을 도와주어 합병증 및 통증에서 벗어나게끔 놀라운 효능을 나타내게 도와드립니다. 올바른 가르침, 준비된 생활로 건강도 올바르게 서 있어야합니다.

청 한의원의 상상하기도 현실의 세계에서 믿기 어려운 빠른효과의 특수침술은 과연 무엇인가..

- 1.예) 70대 바라보는 LA인근에 사시는 김 선생은 허리통증으로 너무나 아파서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본원에 와서 침을 맞은지 불과 2~3분도 채 안되서 그 즉시 그 괴로운 통증이 사라지니 정말 믿을수가 없다. 신기하다, 정말로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서 친구에게 그 상황을 얘기한즉 아무도 믿기 어렵다 말한즉 3주가 지난 이후에도 통증이 없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신기해하는 모습이었다.
- 2.예) 50대 남성으로 오펜지카운티에 사는 강 선생은 오십견으로 팔을 들거나 움직일때 너무나 고통스러웠었고 한 6개월 정도 고생으로 여러 별별치료를 다 했으나 계속 아파서 본원에 와서 치료후 5분도 안되서 그 통증이 사라지고 자유자재로 그 즉시 움직이니 현실의 세계에서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있나 믿기지않아졌고 정말 꿈을 꾸는 것 같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 3.예) 70대의 할머니 엉덩이부터 땡기고 발끝까지 아파서 좌골신경통 및 알수없는 통증으로 2년이상 꾸준히 치료를 받아오다 정말 남들이 2~3분 정도후에 통증이 사라진다는 말을 듣고 그냥 방문 그런데 5분도 안되서 그 오래된 통증이 사라지니 이것은 상상으로 정말 이해가 안 간다고 감탄하시며 뒤돌아 가면서 감사해하는 모습이었다.
- 4.예) 젊은 학생이 6개월정도전에 다리를 다쳐서 심하게 아파서 봉대를 감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온갖치료를 했으나 큰 진전이 없어 통증을 호소하는바 침을 놓은지 5분도 안되서 그 통증이 사라지고 자유자재로 무릎을 움직이니 어떻게 이런일이 이 세상에 있다니 말하면서 Amazing이란 말을 계속 연거푸 말하고 있었다.
- 5.예) 60대 후반의 여성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배부위의 통증으로 무슨 큰병이 아닌가 걱정하면서 내원한바 침 시술후 3분도 안되서 그 통증이 사라지고 없어졌으니 남편도 지켜보면서 정말 눈으로 보면서 믿기가 힘들고 상상으로 이해가 안간다고 너무나 감사해했었습니다.
- 6.예) 80대의 할머니가 당뇨, 고혈압, 고지혈로 여러 알약을 복용하던 중 내원한바 본원에서 3개월 정도 치료후 모든 알약을 다 끊고도 수치가 정상이 되니 가족도 놀라와하고 병원에서도 믿기 힘들다고 의학해 했다고 말하면서 그저 주위사람들이 놀랍고도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 7.예) 4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 당뇨를 앓은지 2년정도인데도 눈이 안보이고 Insulin 70Unit맞으면서도 400~500정도 당수치가 나오고 몸은 너무나 말라서 보기가 힘들정도이고 발바닥은 가죽처럼 벗겨져 있었고 삶을 포기한 모습으로 내원한바 본원에서 3개월 남짓 치료후 눈이 어렵듯이 보이면서 Insulin 40Unit 맞으면서도 당이 100정도 내려고 몸에 살이 붙으면서 발바닥도 보드라워져서 이 기쁨은 천하를 바꾸어도 누릴수 없는 행복이라고 감사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의 임상사례는 개개인의 증상, 병의상태에따라 차이가있으며 통증이 사라졌다해도 다시 볼수 있으며 통증이 사라진 것이 완치된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계속적 치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 고혈압은 완치가 없으며 평생동안 관리 조절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청 한의원 714 636 1412 (24hrs) 714 349 7995 | (213)385-5833
9355 Chapman Ave. #108 Garden Grove, CA 92841 | 3003 W. Olympic Bl. #201, LA, CA

특별 절호의 기회!

놀라운 당뇨 신선단 2병 시면 2병 FREE!
당뇨병에 희소식!!

왜 당뇨신선단이 좋은가?

더 자세한 사항은 www.shinsundan.com을 참조
24시간 주문전화 714.636.1412

Coupon
당뇨, 고혈압, 고지혈, 복부비만 프로그램
50% off 4/30/12까지

한인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를 위한 컨퍼런스

글로벌 고아사역을 위한

한국 교회의 역할

전세계있는 고아들을 도울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한국과 미국의 교계의 지도자들과 함께 협력하는 이번 집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강사



릭워렌 목사



최홍준 목사



폴 페닝턴



에디 변 목사



박형은 목사



에리자벳 스타이피



스티브 모리슨



로빈 페닝턴



박영진/박영주



- 주관 : Hope for Orphans, Saddleback Church, The PEACE Plan
- 후원 : MPAK (한국입양홍보회), CMF Ministries, 서울 온누리 EM
- 날짜 : 2012년 5월 1일 (9AM~5PM)
- 장소 : Saddleback Church, 1 Saddleback Parkway, Lake Forest, California



hopefororphanskorea.org

Register today and save 50%. Use code CD. Go to hopefororphanskorea.org to learn more and to register.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743-10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동의 당뇨환

동의 당뇨환을 복용하는 순간부터 그 효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징

1. 100% 순수 한약재로 되었음
2. 식사가 어느정도 완화됩니다.
3. 피가 청결해져서 최대한의 합병증이 억제됨
4. 식후에만 삼회 복용합니다.
5. 당 수치가 조절됨에 따라 동의당뇨환의 복용량을 줄여가다가 끊을 수 있습니다.

실로암 한의원 2621 W. Olympic Bl #202 LA CA 90006 213-427-0036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8F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사고 판니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라지용 Boltless Shelving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금 매입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마켓용 Gondolas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라짐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가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liff Ave. Lancaster, CA 93535

방수 · 루핑 LIC # 531243

지붕, 옥실, 벽, 발코니, 지하실, 창틀방수
크랙 물 새는 곳, 특수 방수공법
완벽 시공, 3년 개런티

213-327-9929

황씨 냉동, 에어컨, 히팅

신속, 정확, 저렴 전지역 가능, 24시간 대기

상업용: 마켓 식당 리커, 냉동냉장, 웨어하우스 교회 센츨럴 A/C, Walk-in 냉장, 냉동설치 및 수리, Ice Cream 머신수리
가정용: LG벽걸이 A/C설치 수리, 하우스 아파트 센츨럴 A/C 냉장고, 설치 및 수리

(213)220-7131 (626)807-8799

귀국 자동차운송 **업계최저 \$950**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www.easy2424.com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스텐튼 대학교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편강환

▶ 30여개교 해외진출
▶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텐튼대학 (부속) 편강환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면도바르기도하는 알로에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성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증,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 **(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금 삽니다 최고가 현금매입

10K, 14K, 18K, 금, 은수저 등 (무료출장매입)

LA: **213-407-8759** / Other: **714-293-9701**

비영리단체 설립 및 면세허가 (교회, 선교단체등)

- ▶ 처리경험 풍부 www.UsCpaLegal.com
- ▶ 비영리단체 세무상담, 장부정리(Quick Book), Tax 보고
- ▶ 일반 영리 사업체 설립 및 각종 세무보고
- ▶ IRS, EDD, FTB 등 세무감사 수감

Kim & Accountancy Tel. 714-226-0900

sasaferterschool.blogspot.com

믿고 맡기세요. 아이들의 성적이 달라집니다 K~6

Math English E.S.L Writing Bookclub

APPLE TREE ACADEMY

Pick up, 전담한 식안과 함께 학교공부 준비를 100% 도와 드립니다.

213.507.5045

가디언 컴퓨터 수리

213-663-8007
213-536-4696

317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밑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참숯 (바베큐용)
- 각종 Tea (커피, 동글레, 홍차, 녹차 등)

818-306-7652

Value Windows & Doors **이중창문교체전문**

뜨거운 여름 햇빛차단 Low-E3

→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그레이스 최 **최추신경 한방병원**

www.herbsabu.com

방울 인삼으로 식을 먹어주세요. 내장비만 & 다이어트

금연클리닉 스페셜 \$200 (당문 때까지 치료)

726 S. Wilton Pl, #2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1-8228

Kim Ji Young Hair Styling **Kate Cho**

헤어디자이너 **케이트 조**

Man's cut \$10.00 Women's cut \$20.00

영양팩, 케일팩, 아재팩 \$50.00 하이아이트, 코팅, 염색 \$50.00

매직 스트레이트 펌 \$80.00

반드시/꼭 예약 필수!! **213.505.5756**
430 S. Western #101, Los Angeles, CA 90004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 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전문 제작 전통 모터 시스템

- 커튼-맞춤제작(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TEL. **(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홈 페이지 제작

제작비용 걱정, 이제 그만! **\$499**

저렴하고 빠르게 제작

풍부한 제작경험을 토대로 정성껏 제작해드립니다.

제작문의 **213.364.2124**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3일이면 효능, 7일이면 확실, 3주면 혈당 조절

효능 입증된

‘동의당뇨환’ 보급에 앞장

실로암 당뇨전문한의원 오병은 원장

19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국과 미국에서 43년간 목회한 뒤 70세에 은퇴. 그후 ‘늦깎이 학생’으로 대학에 다시 들어가 공부해 1977년 가주 한의사 자격증을 취득, 현재는 노후를 환자들의 병을 치유해 주는데 보람을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한 원로목사가 있다. 바로 실로암한의원 오병은 원장(81) 이야기다.



오병은 원장

하면 혈당 강하제를 복용 중인 사람의 90%, 인슐린을 투여하고 있는 사람은 80%가 약을 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당뇨 치료제로 잘 알려진 동의당뇨환을 보급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테네시에 사는 공세호 씨는 당뇨 투병 30년 만에 동의당뇨환을 복용하고 건강을 찾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증언한다. 다음은 동의당뇨환을 복용한 환자들의 수기다.

▷한태성 박사(67세), 당뇨환자: 갑자기 체중이 20 Lbs나 빠지면서 심한 갈증과 피곤이 동반돼 작년 9월 동의당뇨환이 생약이라 안심하고 실로암한의원을 찾았다. 공복당 수치 463이 복용 3일 후 237로 내려갔고, 2주 후엔 89로 떨어졌으며, 피곤과 갈증도 없어져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다. 너무도 놀라운 효과였다. 2개월 복용 후 동의당뇨환을 완전히 끊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발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다. 실로암한의원원장에게도 고맙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린다.

▷함 은퇴목사(72세) 당뇨투병 35년: 실로암한의원에 처음 왔을 때 증상은 매일 4회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 신장합병증으로 주 2회 투석을 하고 있었다. 동의당뇨환을 2개월 복용하였더니 당뇨 수치가 정상에 다왔고, 1개월 더 복용한 후 신장투석을 안 하게 되었고 동의당뇨환을 끊은지 1년이 되었는데도 재발이 없다. 동의당뇨환이 기적을 낳은 것이다.

▷전화: 213-427-0036
▷주소: 2621 W. Olympic Bl. #202 Los Angeles, CA 90006
▷웹사이트: siloamherbal.com

오 원장은 “동의당뇨환을 복용

정한다

전쟁의 상흔에 심긴 씨앗이 전세계에서 꽃피다

월드비전 설립자 친딸과 한국 고아원 원장들의 만남



덩커 여사가 사진을 보며 한국 고아원 원장들과 과거를 회고하고 있다. 한국에서 월드비전의 도움을 받았던 이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 그녀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사진 자료들을 직접 준비해 전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날 1명의 고아원 원장이 50년 전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을 찾아냈다.



메릴리 피어스 덩커 여사

이들의 공통분모는 예수, 사랑, 한국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굶어 죽거나 방치되는 어린이들을 살리기 위해 해 밤 피어스 목사가 바로 이 단체, 월드비전을 설립했다. 고아원부터 자모원까지 폭넓게 구역을 펼쳤고, 이것이 모태가 돼 오늘 월드비전은 전세계에서 4백만명의 어린이들을 정기적으로 후원할 뿐 아니라, 긴급구호지역, 지역개발사업에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세계 최고 기독교 구호기관으로 성장했다.

피어스 목사 당시 그로부터 직접적인 도움을 받았던 고아원 원장 20여명이 4월 19일 캘리포니아 몬로비아에 위치한 월드비전 세계본부에 방문했다. 수십년간 사역하며 월드비전으로부터 받았던 도움을 감사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부터 비행기에 오른 그들이었다. 이미 그 역사의 산 증인들은 대부분 세상을 뒀고 그 자녀들이 대신 감사를 전하기 위해 동행했다.

이들이 온다는 소식에 현재 월드비전 사역자이면서 피어스 목사의 친딸인 메릴리 피어스 덩커 여사가 함께 했다. 그녀는 원장들이 도착하기 몇 시간 전에 이미 세계본부에 도착해 자신이 보관해 온 아버지의 사진과 사역의 모습들을 전시했다. 그녀는 여러 사진을 들며 자랑하듯 “혹시 오늘 오는 분 중에 이 사진에 있었던 분도 있을 수 있다”며 기대하고 있었다.

메릴리 원장들이 나타나자 덩커 여사가 먼저 뛰어 나왔다. 말이 잘 안 통했지만 눈빛만으로도 그리움과 사랑이 넘쳐 나왔다. 고성에서 43년간 사역해 온 윤금선 원

장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사진을 꺼내 들고 우리 사역도 없었다”고 감사함을 연거푸 전했다. 그녀는 “피어스 목사님이 사 주신 선물을 우리 고아원 아이들에게 나눠준 후 찍은 사진”이라고 말하며 “목사님은 다시 볼 수 없지만 딸이라도 만나게 되니 참 감사하다”고 눈물을 글썽했다. 덩커 여사는 “월드비전이 여러분들을 도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사역한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참여했다.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그리고 “우리가 도왔던 한국이 지금 전세계의 가장 부강한 나라로 발전했다”며 “지금도 남미와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만나면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며 희망을 전하게 된다”고 자부심을 나타냈다. 그녀는 “우리가 하는 일은 육신을 구하는 일임과 동시에 그 영혼을 구하는 사역이었기에 더욱 중요한 사역이었다”고 말하자 한 원장이 “월드비전의 도움을 받은 우리 고아원에서 목사가 11명 배출됐다”고 자랑했다. 박수가 쏟아졌다.

그녀는 “지금 전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월드비전은 바로 여러분이 낳으신 것이다. 전쟁의 상흔이 가득한 그 땅에서 여러분이 이 월드비전을 낳았다. 어떤 돈으로도 만들어 낼 수 없는 기적을 우리가 함께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장들은 “피어스 목사님이 없었다면 우리도

없고 우리 사역도 없었다”고 감사함을 연거푸 전했다. 모임이 끝난 후, 덩커 여사에게 물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느냐고. 그녀는 “1년여에 가끔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다. 어릴 때부터 나는 내 아버지가 내가 아닌 다른 한국 어린이들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며 자랐다”고 말했다. 그녀는 월드비전이 창설되던 그해 태어났다고 한다. “별로 가정적이지 못하셨던 거 같다”고 했더니 “그렇지만 아버지의 생명을 향한 그 사랑이 내게도 감동이 될 때, 나는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었다. 그는 늘 지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왔고 또 곧장 한국으로 떠나곤 했지만 그는 헌신적이고 기도의 힘을 믿는 아버지이자 목회자였다”고 강조했다. 옆에 있던 또 다른 원장은 “피어스 목사님이 월드비전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는 한국교회에 복음을 전해 준 대표적인 부흥전도자이자 목회자였다”며 “서울에서 환경적 목사님과 함께 집회하실 때 받았던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다”고 회고했다.

당초 예상했던 1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이들은 대화를 계속 이어갔다. 예수의 사랑으로 어린이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했던 그들을 기억하는 2세대들이 월드비전 본부에서 월드비전의 정신과 사역을 다시 한번 나누고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김준형 기자



덩커 여사와 고아원 원장들이 손으로 사랑을 상징하는 하트를 만들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Advertisement for iTalkBB mobile service. Features: AT&T, Verizon; Global Unlimited Plan for \$9.99/month; Global Unlimited Plus Plan for \$14.99/month; 2012년 4월 30일 까지; 1.800.872.2902; www.Korea.iTalkBB.com



현대자동차 구입이나 리스에 관심 있으신 분

2012 최신형 EQUUS



8 스피드의 넘치는 힘과
럭셔리한 중후함을 느껴보세요.

\$599 + TAX

Closed and lease 48 month plus tax
MSRP: \$59,650 Residual : \$29,228.5
T.D.O: \$4,995 No Security Deposit
For 12k Per Year
Plus College Rebate, Military Rebate,
Comp. Coupon
(O.A.C)

방문하시면
유명 골프장에서
두분이 무료로

라운딩 하실 수 있는
티켓을 드립니다

(조건에 해당 되시는분께는 티켓 2장을 더 드립니다)

행사기간 2012년 4월1일~30일

가장 많은 EQUUS를 보유한 북미 No.1 현대 딜러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Fleet Manager
찰리 정
213.276.8959



Sales
스티브 장
213.235.6825

America's Best Warranty
10 Year/100,000 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HYUNDAI
You said it. We heard it.
IN THE BOOTH.



Puente Hills
HYUNDAI (Best Buy점)



*L.A. 한인타운과 오렌지 카운티에서 20분거리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WWW.PHHYUNDAI.COM 1-888-644-7114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s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